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5월 3일(금)
... (음력 3월 25일) ...
Пятница
3 мая 2024 г.
№ 17 (1208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일 러시아에서 봄과 노동의 날을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우리는 5월 1일을 봄과 노동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밝고, 활기찬 날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5월 1일은 창조적인 활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근로에 있어 인간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할린주의 경제 및 사회적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와 마을은 해마다 더욱 쾌적하고,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공동의 끈질긴 수고의 결과입니다. 1인 1m²의 주택이 건설되고, 석유 1드림통 생산, 1톤의 어획이 이뤄지는 것은 모두 사람들의 노고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기술자, 석유 생산자, 어획 종사자, 교사, 의사, 사업가, 다양한 직업의 대표자 등 이들 모두가 사할린주에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할린 주민 여러분의 향토를 향한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봄철의 찬란한 휴일과 강건함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봄과 근로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사할린, 봄과 노동의 날 기념

5월 1일 러시아에서 봄과 노동의 날을 기념한다. 매년 시민 행진을 비롯 여러 대중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시민 행진이 취소되고 대규모 행사도 하지 않았다.

이른 아침,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대중 매체와 소셜 계정을 통해 사할린 주민들에게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날은 밝고, 활기찬 날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5월 1일은 창조적인 활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근로에 있어 인간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할린주의 경제 및 사회적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와 마을은 해마다 더욱 쾌적하고,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공동의 끈질긴 수고의 결과입니다. 1인 1m²의 주택이 건설되고, 석유 1드림통 생산, 1톤의 어획이 이뤄지는 것은 모두 사람들의 노고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기술자, 석유 생산자, 어획 종사자, 교사, 의사, 사업가, 다양한 직업의 대표자 등 이들 모두가 사할린주에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할린 주민 여러분의 향토를 향한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봄철의 찬란한 휴일과 강건함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봄과 근로의 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사할린 주내에서는 5월 1일을 기념하는 축제 공연이 펼쳐졌다. 코르사코브시의 축하행사는 지역의 댄서와 가수들이 무대를 빛냈다. 어린이 예술학교 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빈자리가 없이 꽉 찼다.

우글레고르스크시의 중앙 공원에서는 "봄의 산책"이라는 노래 행사가 열렸다. 5월 1일을 기념하여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며 공공장소를 축제 분위기와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이 기념일에는 지역 주민과 손님들을 위한 흥미로운 마스터 클래스도 열렸다. 그리고 레소고르스크에서는 주민들에게 풍선과 엽서를 나눠주는 분위기가 있는 거리 행사가 열렸다.

아니와시에도 축제 콘서트가 열렸다. 이 공연에는 지역 어린이 창작회관의 재능 있는 예술단들과 솔리스트들이 출연했으며, 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린 다채로운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본사 기자)

사할린주한인회, 모스크바에서 한인 문화와 풍습을 소개

5월 1일과 2일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상설 국민 경제 달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러시아" 전시회 일환으로 사할린 부스에서 한인 문화와 풍습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12명으로 구성된 사할린주한인협회 대표단이 모스크바로 떠났다.



전시회 관람객을 위한 깜짝 이벤트가 많았다. 한글쓰기와 자가에 옷칠을 하여 문양과 디자인을 장식하는 한민족 전통 예술인 나전칠기 활동교실도 열렸다. '하늘' 타악기 팀은 첫 날에는 불타는 공연을 극동부스 박람회장에서 선보였다. 장인들은 전시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사할린식 왕만두인 뽕세를 대접했다. 뽕세를 시식한 사람들은 '맛있다고들 했다. '토르나도' 클럽 선수들의 멋진 태권도 시범도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사할린주, 올해 초부터 550개 주택 진입로 보수공사

올 초부터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주택 진입로 550곳의 보수공사가 진행된 가운데 사할린주에서 3천 곳의 공공시설을 수리할 계획이다. 이는 모든 지역의 수리가 필요한 주택 진입로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공공시설 보수공사 완성도에서 선두에 있다. 올 초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180곳의 주택 진입로가 개선되었고, 총 1000곳 이상을 수리할 계획이다. 2위는 홈스크 지역으로 현재 350곳의 진입로 중 64곳의 주택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3위는 코르사코브 지역으로 162곳의 공사 중 공공시설 50곳이 새로이 단장되었다.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는 190곳의 시설들에 대규모 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네웰스크 지역은 185곳, 오하 지역은 173곳, 쿠릴열도에서는 올해 145곳의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의 나탈리아 쿠프리나 장관은 "모든 지자체에서 주택 진입로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모든 지역들의 보수공사가 계획에 따라 진행돼 일정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동자금 조건에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있는 관리회사들만이 보수공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이들 기관에는 지출비용을 상환할 보조금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지사의 지시로 사할린 지역에 공공시설 4천 곳 이상을 보수공사했다. 주택 진입로 보수공사는 '돌봄, 보호, 존중' 프로그램과 <우리의 주택가, 우리의 주택 진입로> <통합된 러시아> 기획의 중요한 목표이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한입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지난 4월 25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할린주립역사기록원이 출간한 "영화관-극장으로" 전시 도록이 소개되었다. 200여 페이지의 이 카탈로그는 최근 몇 해 동안 역사기록원이 영화와 연극에 대한 주제로 개최한 전시에 출품된 사진과 자료로 구성되었다. 도록 구성자는 본 기록원 전문가인 마리나 그리자예와, 안나 이사키키나와 김찬옥 씨다. 도록에는 사할린주의 여러 극장과 영화관의 역사가 담겨있다. 이 중 몇 페이지에는 사할린주 국립조선순회극단 역사가 실려 있다. 아래에 조선극단에 대해 도록에 실린 글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편집부)

사할린 조선 순회 극단

종전 이후 창립된 조선 순회 극단이 11년동안 성공을 거두며 활동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 독특한 극단에 대해서는 아주 드물게 회자된다. 역사학 준비사인 알렉산드르 크라예브와 인가 추펜코와는 다큐멘터리 자료를 문자 그대로 조금씩 수집하여 극단의 창의적인 활동을 연구하고 극단의 중요한 역사적인 에피소드(순간)를 반영했다.

1947년에 사할린 주 필하모닉에서 조선 악단(양상블)과 연극단이 창설되었고, 1948년에는 주 집행위원회의 문화부는 이 양상블을 바탕으로 조선 순회극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남사할린에 형성된 한인(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존재였으며, 그 수는 1946년 7월 1일 현재 27,000명을 넘었다.

새 극장은 자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처음에 배우들은 급히 리허설실로 전환했던 일반 창고 건물에서 연습했다.

1949년 11월에 극장에 제야트 랄나야 거리 79번지(현재 하바롭스카야와 크류코브 거리의 교차점 지역)에 있는 옛 일 본 영화관의 낡은 건물을 사용했다. 극단은 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집된 사 람들과 현지 조선인들로 구성되었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민족 극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무용수 김춘수처럼 고국에서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나중에 극단은 타슈켄트 연극미술대학의 졸업생으로 보충되었다.

처음부터 극장은 두 그룹(13 명은 연극팀, 14명은 공연팀)으로 나뉘었다. 이를 통해 극장은 러시아 국민 앞에서 콘서트 그룹의 공연을 통해 공연장 수를 확장할 수 있었고, 이는 주로 극장의 재정 계획 이행을 보장했다. 드라마 그룹의 출연은 그다지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조선극단은 연간 300회 이상의 연극공연을 펼쳤다. 조선인 배우들은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사할린 남



부의 도시와 마을을 중심으로 200회가 넘는 순회 공연을 하였다. 티켓 가격은 5 ~ 21루블로 저렴하여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1년에 5~7개의 새로운 연극이 공연됐다. 레퍼토리에 조선, 러시아, 소련 문학 작품이 포함되었다: 태장춘의 '흥부와 놀부', '심청전', '춘향전', '신부 없는 결혼식', 김기철의 '홍길동', 구세인 무크타로브의 '가족의 명예', 태양의 '노예', 알렉산드르 오스트롭스키의 '죄책감 없는 길티', 와렌틴 카타예브의 '소비에트 정부를 위하여', 최길춘의 '장한몽', 뮤프계의 '래일은 우리의 것', 김해운의 '장화와 호영', 유기호의 '승

냥이' 등.

극단은 브세볼로드 위슈넵스키의 "낙관적 비극", 유기호의 "승냥이", 태장춘의 "흥부와 놀부"(1957, 1958)는 연극단 경연대회에서 두 번이나 1위 후보로 지명되었다.

많은 공연이 한국어로 공연됐는데, 극장을 찾는 사람은 한인뿐만이 아니었다. 소련의 다른 공화국에서 사할린으로 온 소련 정착민들은 화려한 의상, 특이한 장식, 그리고 물론 한민족의 독창적인 노래와 춤을 통해 "동양의 이국주의"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장은 예술의 위대한 힘 덕분에 언어 장벽을 극복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팬으로 구성된 자체

관객이 생겼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들은 때로는 최대 몇 달까지 지속된 투어에 참여했다. 이들은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정착지인 산림장, 어부장에서 공연했다. 극단은 극동 및 중앙 아시아 도시들에서 순회공연을 했다.

1958년에 극단은 창단 10주년을 맞이해 그해 극단 전체가 중앙아시아 순회공연을 떠났다. 1937년, '스탈린의 국가 정책'의 결과로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설된 극동지역 조선극장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전'되었다. 1958년에 이 극장은 카자흐 공화국의 탈디쿠르간 지역의 우수토베 마을에서 운영되었다. 카자흐 국립조선극장에서 출연을 통해 사할린 아티스트들은 기량을 선보이고, 전문 평론가들의 의견을 듣고, 동료들과 창작 경험을 공유했다. 사할린 조선 순회극단의 순회 레퍼토리 프로그램은 공연 목록, 간략한 내용, 배우, 감독, 무대 감독, 배우, 가수, 음악가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15페이지 분량의

브로셔로 제작되었다.

중앙아시아, 사할린 주,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의 도시를 통한 성공적인 투어는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극단원 일동에게 작업에 대한 자신감과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투어가 끝난 직후 극단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고, 1959년 7월 1일 조선순회극단이 조선양상블로 개편되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선인의 일부가 주를 이전함에 따라 조선 주립순회극단은 최근 러시아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팝콘서트단으로 변모했으며, 13인조 연극단의 극장은 공연장과 관객의 감소로 인해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공연자수에 제한이 있는 소규모 극단은 오늘날 과제에 마땅한 연극을 선택할 기회가 별로 없다."

1959년 8월 1일, 옛 조선극장 건물에 조선문화회관이 개관되어 아마추어 예술팀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극단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 수영장, 개장 60주년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립 수영장 개장 6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특이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로지나" 문화회관에서 '한 숨에: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연극'이라는 공연이 펼쳐졌다. 이 공연은 제자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을 보여주며, 좋아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주제를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의 홍보실은 오늘날 수영 학교의 6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자신의 사랑과 지식을 800명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수영장을 기지로 한 스포츠 학교에는 수영과 리듬 체조의 두 가지 과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시의 수영장은 수년 동안 개인 기록을 세우는 장소가 되었으며, 매년 9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즐거움이나 건강 유지를 위해 이 기관을 방문한다.

이날 행사 공식 부에 축사를 한 모든 귀빈들은 60년 동안 수영 스포츠 학교가 화목한 큰 가족이 되었다며 모든 성공의 순간들이 하나의 기쁨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영 학교의 역사는 수천 명의 졸업생, 수백 개의 대회, 우승 및 업적을 포함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이 학교는 뛰어난 운동선수와 스포츠마스터 후보, 그리고 단순히 스포츠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길러냈다. 2013년 유럽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나탈리아 위노쿠렌코와는 200m 혼영, 100m, 200m 평영에서 1위를 차지하며 러시아와 유럽 신기록을 세웠다.

매년 학교는 30개 이상의 수영 및 리듬체조 대회를 주최하고 최소 3,000명이 참가한다. 스포츠 베테랑들 간의 수영 대회, 학생들을 위한 시 대회, 의료 종사자들 간의 시 및 지역 대회, 스파르타키아드 대회가 수영장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기념식에서 직원들은 사할린 주지역 두마, 스포츠부, 시두마,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정부로부터 표창장,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Городской бассей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метил 60-летний юбил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о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60-летию юбилею городского бассейна. Для праздника был выбран необычный формат, в ДК "Родина" состоялось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а одном дыхании: спектакль о том, как важно любить". Через историю дружбы воспитанников школы спектакль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гостям таланты учащихся, донес до зрителей главную мысль — все возможно, когда в сердцах есть любовь к любимому делу. Сегодня более 60 сотрудников школы по плаванию дарят свою любовь и знания 800 учащимс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е работают два отделения: плавание 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гимнастика. Для многих городской бассейн на долгие годы стал местом, где ставятся личные рекорды: ежегодно учреждение посещают более 95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плаванием для собственного удовольствия и поддержания физической формы.

Во время торжественной части все гости отмечали, что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по плаванию на протяжении 60 лет остается одной большой, сплоченной семьей, для которой успехи становятся общей радостью.

История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по плаванию — это книга, вобравшая тысячи выпускников, сотн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бед и достижений. За эти годы школа воспитала целую плеяду выдающихся спортсменов, КМС и просто преданных спорту людей. В 2013 году на чемпионате Европы по плаванию Наталья Винокурenkova на дистанция 200 м в комплексном плавании, 100 и 200 м брассом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установив рекорды России и Европы.

Ежегодно школой проводится более 30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плаванию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е, в которых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не менее 3000 человек. На базе бассейна регулярно организуются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лаванию среди ветеранов спорта, город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школьников, муниципальные и област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реди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спартакиады.

В ход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сотрудники школы были отмечены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и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고르니 워즈두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무료 산책에 초대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단지에서 무료 훈련 및 레크리에이션 산책이 시작된다고 스포츠관광단지 보도부에서 전했다.

이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밤의 등불" 건강 프로젝트의 준비 일환으로 열린다. "아나톨리츠부터의 건강" 커뮤니티 팀과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는 주민들을 초대하여 단지의 남서쪽 오솔길을 따라 무료 훈련과 건강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레크리에이션 등반은 매주 월, 수, 금 20:00부터 진행됩니다. 행사 시작 지점은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의 케이블카 하부역"이라고 전했다.

산책은 단지 내 코치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사전에 등록하거나 신청할 필요는 없다. 운동복이나 편안한 복장으로 하부역으로 가면 된다.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бесплатные прогулки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начинаются бесплатные тренировоч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прогулк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ТК.

Прогулки пройдут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осуществлению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гни ночного Южного». Команда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Здоровье от Анатолича» 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иглашают жителей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и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бесплатных тренировоч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прогулок по юго-западному серпантину.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восхожден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еженедельно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средам и пятницам с 20:00. Места сбора - нижняя станция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Прогулки запланированы по руководством тренеров комплекса. 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или записываться заранее не нужно. Необходимо подойти в спортивной или удобной одежде на нижнюю станцию.

사할린, 제1회 "러시아, 나의 지평선" 국가상 결승에 진출

제1회 국가상 '러시아, 나의 지평선'의 결과가 모스크바에서 발표되었다.

(8면에 계속)

'그리운 모국의 품으로'... 올해 첫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4월 27일 16명, 5월 11일 62명 동해항 입국... 재외동포청 "국내정착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동포들이 올해에도 그리운 모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올해 입국하는 대상자 263명 중 단체입국 예정자는 총 78명이다. 그 중 16명은 4월 27일, 62명은 5월 11일 각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한다. 단체 입국하지 않은 동포는 개인 일정에 따라 개별입국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지만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주귀국 동포들은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1990년대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동포는 총 5,086명이다. 이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3천여 명이다.

이번에 입국하는 동포들은 전국 각지 거주 예정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다.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전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사할린동포들이 겪은 역사적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겠다"며,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이어 앞으로도 영주귀국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사할린'을 주제로 개인전을 꿈꾸다

지난 4월 26일 (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까운 호텔 대회의실에서 새고려신문이 추진하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 일환으로 미술작가 키오(허) 야나와 만남이 있었다.

키오 화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만남에 앞서 커피브레이크에는 작가가 직접 만든 진저브레드 쿠키를 맛 볼 수 있어 행사 분위기가 금방 따뜻해졌다.

키오 야나는 얼마전 새고려신문 한글판 지상에 소개한 적이 있다.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키오 야나에 대해 알 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림을 그리고 진저브레드 작품을 만들고 폴리머클레이 어로 진짜 생화 같은 작품을 만드는 등 야나는 재능이 많다.

어릴 적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지만 실상은 아이 돌을 낳고, 막내가 4살이 된 12년전야야 그림 스튜디오에 등록했다. 늦었지만 창의력과 영감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국제 인재 재능 프로젝트에서 최우수 상도 수상하고 진저브레드 명작(바실리 성 성당, 호그와트 등)을 만들어 이름을 날려 모스크바 연방 티비 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왔다. 사할린의 자연을 즐기는 그는 종종 사진을 찍으러 가기도 한다. 사할린을 매우 좋아해 훗날 '사할린' 주제로 개인 미술전을 여는 것이 그의 꿈이다. 이미 그림 몇 개를 그렸으니 그 꿈에 몇 걸음 다가간 셈이다.

거의 서른살이 돼서야 창의적인 취미생활을 시작한 야나



는 자신에게서 재능을 찾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결코 늦지 않다고 말했다. 뭐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날 그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전통적으로 만남의 1부는 행사 진행자와 대화가 있고 2부는 관객들과의 문답 시간이다. 이날 많은 질문이 쏟아져 관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한 질문을 통해서, 누군가 야나의 그림을 너무 좋아했는지, 수많은 그림 중 작품 3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야나는 질문자 중 한 사람을 뽑아 본인이 직접 만든 부활 쿠키 세트를 선물로 주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 만남이 진행되었고, 언제나 변함없는 가족의 배려와 응원이 느껴졌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학생들,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대해 발표

지난 4월 1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찾아내며'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 연구보고서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의 후원으로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사할린주한인협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어 교사, 한민족 문화 예술 전문가, 한민족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와 씨름, 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과학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제2호 김나지아, 동양김나지아,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학생, 사할린주청년회의 회원, 사할린씨름협회, '토르나도' 태권도클럽 선수와 사할린국립대 학생들이 과학 및 프로젝트 활동에서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문화와 가족, 예술과 가족, 스포츠와 가족, 역사와 가족, 언어와 가족 등의 주제에 맞춰 연구발표문을 준비했다.

"발표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문제, 특히 가족 전통, 세대 간의 연결, 부모의 지원, 언어와 문화의 보존, 문화의 대화 문제 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특별히 와닿았다"라고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임 엘비라 교수가 강조했다.

대회 수상결과와 다음은 같다.

1위 - 이유민,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호 김나지아 8학년, "민족 전통과 관습을 보존하는 가족의 역할" (교사 스미르노와 알렉산드라)

2위 - 김 빅토리아야, 오스트롭스카야 예와, 사할린국립대학교 2학년, "한-러 가족 : 역사, 고정 관념 및 전통" (교수



코르네예와 인나)

2위-압두라흐모노와 마라흐보, 읍친니코와 크세니야 사할린국립대학교 3학년 "문화의 대화 : 언어가 의식을 결정하는 방법" (교사 임 엘비라)

3위 - 소나라, <에트노스> 예술학교 8학년, "한국 전통 현악기" (교사 김 예브게니야)

3위 - 쿠왈지나 엘리자베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5호 학교, "가족 지원은 스포츠 성공의 열쇠" (담당 이 세르게이)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찾아내며' 교육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실현되고 사할린 지역의 다문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대인 관계 및 민족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흥미로운 행사가 많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행사는 새고려신문 지면에 반영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임 엘비라 학장이 말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행복 / 유지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슬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죽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형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뜻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만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통영국제음악제를 놓쳤습니다. 매년 봄 4월 초쯤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제는 명성을 떠나 정말이지 대단하지요. 단 한 번도 프로그램이 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클래식 축제, '임윤찬'이라는 젊은 거장의 첫 발자국을 남긴 곳. 아시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아, 4월의 통영을 놓치다니!



서울에서 통영까지는 늘 운전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멀지요. 부산보다 멀어요. 교통이 죽 가다가 꼬불거리는 느낌입니다. 바닷가 라면 환장하는 편인데, 제게 통영의 분위기는 늘 따사로운 봄날입니다. 숙소를 잡고 다라이에서 파는 활어횟감을 떠서 초고추장 잔뜩 찍어 먹는 여행. 도다리 축국에 취해 코를 박고 먹을 수 있는 곳, 미로를 닮은 언덕 길 마을 어딘가에 코딱지만한 카페가 있는 곳, 허무할 만큼 그리 높진 않아 괜히 부산의 감천 마을과 비교하곤 하지만, 통영은 통영만의 매력이 준비합니다. 밤이 오면 깜찍하거든요. 별빛, 불빛, 이를 반사하는 바다의 차분한 미소 마저도.

통영이 낳은 시인, '유치환'은 우체국 문지방이 닳도록 편지를 썼다지요. 이영도 시조 시인에게. 대략 5천통 가량을 보냈더니, 스무 해 가량 보냈다고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요것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필 또 유치환 시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 이영도 시인은 상처를 한 상태였습니다. 각자 국어교사와 가정교사였던 거지요. 늘 그렇듯이 행복을 향해 가는 길은 왜 이리 꼬불꼬불 복잡할까요. 이에 대한 해석이야 저야 뭐, 노 코멘트. 요즘 좀 조심해야 하거든요. 저야 뭐 야무지니깐, 흐음."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금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으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시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Яна Кио: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В прошлую пятницу, 26 апрел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художницей Яной Кио. Она прошл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К «Гагарин».

Яну Кио можно считать по-настоящему творческой личностью. По настоянию родителей она закончила музыкальную школу, где имела успехи, но с самого детства ее душа лежала к рисованию. Еще в школе девушк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рисовала плакаты для различных шко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Любовь к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все время была с ней, но занялась Яна творчеством всерьез около двенадцати лет назад. Отучилась на финансиста, родила двоих детей, и лишь когда младшему было года четыре записалась на занятия в студии живописи. И это стало стартом в ее новую, полную творчества и вдохновения жизнь. Ее творчество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алант-проекте GOLDEN TIME TALENT под эгидой ЮНЕСКО. Ее работы заняли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в Италии и Лондоне). На занятиях в студии живописи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дали толчок другим увлечениям: выпечка пряничных шедевров и лепка из полимерной глины. А еще Яна занимается фотографией, любит бывать наедине с природой, это дает ей силы и вдохновение. Она очень любит Сахалин, и очень хочет сделать свою персональную выставку, посвященную Сахалину. Сейчас она всю работу над этим,

уже написано несколько картин.

Первая часть встречи шла в форме диалога между Яной и ведущей встречи – главным редактором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икторией Бя. Яна поведала о том, что никогда не поздно найти в себе талант, никогда не поздно заявить миру о себе. Также была поднята важная тема творческих мук и процесса создания работ. Вторая часть встречи традиционно была отдана вопросам из зала. Было задано множество вопросов. Перед тем, как задать вопрос, многие выражали искреннее восхищение творчеством Яны. Кому-то нравились картины, кому-то букеты из «холодного фарфора», а кто-то в восторге от ее пряничных дворц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картин, позабавил такой факт: художница написала немало картин, и кому-то, видимо, так приглянулись ее работы, что три картины просто-напросто украли в прямом смысле.

Перед началом встречи многие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имбирные пряники, которые приготовила Яна. Авторам лучших вопросов, по мнению Яны, в этот день в подарок достались пасхальные пряничные наборы от героини встречи.

Встреча получилась довольно-таки душевной и воодушевляющей. Состоялся хороший разговор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мероприятия слушатели еще долго не хотели расходиться. Окружив Яну, они продолжали задавать вопросы, говорить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и пожеланий дальнейших успехов.

Александра КОВАЛЕВА,
студентка ИФФИВ СахГУ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тавили в Москве свою культуру и обычаи

1 и 2 мая на стенд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ставка «Россия») на ВДНХ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сетителей выставки ожидало много сюрпризов. Состоялись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аллиграфии и наджон чильги - традицион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искусству декорирования изделий узорами и рисунками из перламутра с лаковой обработкой.

Свое искусство на ВДНХ представил зажигательный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чиков «Ханьль», имеющий множество наград, в том числ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Мастерицы угощали посетителей выставки пянсе. Пирожок на пару (пянсе) — национальное корейское блюдо, ставшее разновидностью фастфуда,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г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 также в эти дни состоялись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о тхэквондо, которые продемон-



стрировали силу, мастерство и грациозность движений, убедили зрителей, что любой человек может овладеть подобной техникой.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Сахалин на ВДНХ».

В Хабаровске пройдет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16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20 июня 2024 года в г. Хабаровск пройдет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авославие и корейцы на рус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 16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ают Хабаровская духовная семинария, Славя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ославное Обществ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обсудят темы: история миссионерства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духовной миссии в Корею, история христианской ми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 конференции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ученых, науч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аспирантов и магистранто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а также других компетент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данной теме. Конференция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очном формате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част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м-канале Коре-сарам (<https://t.me/saramkor>).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Курс «Пишем вместе» в городе Ан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ервый курс «Пишем вместе» был проведен мною в 2018 году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дея курса появилась после прочтения книги японского нейробиолога Такаси Цукияма «Как забыть все забывая». Позже я отучилась на литературных курсах и после их окончания не только написала свой первый роман, но и обнаружила неожиданный эффект – писательство хорошо тренирует память, а еще влияет на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амым положи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С тех пор я провела пять курсов «Пишем вместе», а в апреле 2024 года провела шестой, на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 Корее.

Первое занятие мы провели в городе Инчхон, потом перебрались в город Ансан, в квартал «Кохян мауль».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ины Дю Хун Чун 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ь Кан Александр радушно встретили нас и предоставили помещение. Если бы не их помощь, курсы бы не состоялись.

На первое занятие пришло 15 человек. Самой младшей участнице было 52 года, самому старшему – 74. Я кратко рассказала о методике, и мы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боте. Материалом послужила притча о Хан Сёк Боне. История о материнской любви захватила участников, и они, преодолев стеснение, стали ее обсуждать.

Притча «Материнская любовь» всегда откликается в сердцах читателей, сколько бы им ни было лет. Мы спорили – нужна ли беспощадная строгость в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и как соотносится требовательность и материнская любовь. После обсуждения я попросила участников выполнить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и через неделю получила первые пробы пера моих учеников.

На следующих встречах мы писали различные истории, и это было так увлекательно, что вместо четырех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занятий мы провели шесть.

Каждый раз, читая написанные рассказы, я поражалась тому, насколько интересно и талантливо они написаны. Хотя... Нет ничего удивительного в том, что зрелым людям, у которых за плечами довольно длинная жизнь, есть о чем рассказать. Я верю, что написать, как минимум, одну интересную историю может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На каждом занятии я рассказывала о разных писательских инструментах, и участники с вниманием и, даже я бы сказала, с нетерпением впитывали новые знания.

Предлагаю вам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ссказом самого старшего участника группы. Он написан Виктором Борисовичем Че (Че Иль Бон) о тайфуне «Филлис». Старожилы помнят, какое это было наводнение.

А еще Виктор Борисович написал рассказ о внуках, и мы все улыбались, когда слушали его.

Почти все участницы группы писали о своих близких. И это были очень теплые рассказы, овеянные грустью и любовью – ведь у большинства из нас на нашей родине, России, остались самые близкие люди.

И еще.

Дорогу в писательство дала мне газета, которую вы сейчас читаете –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ять лет назад я отправила свой рассказ «Дорога к бабушке» на конкурс эссе в газету, и он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заставило меня поверить в свои силы. А сейчас участники моего мастер-класса пишут рассказы на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курс, который объявила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 этом году. Как интересно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жизнь, правда?

Пишите и вы – о себе, о своей семье и об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усть всем сопутствует удача!

Виктория Цой, автор романа «Когда я буду морем», автор курса «Пишем вместе».

Тайфун «Филлис»

Это было в 81-ом году,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шёл дождь, непрерывно, день и ночь с разной интенсивностью. Уровень реки заметно поднимался с каждым днём. Наш дом расположен перед «Дальтехмонтажем» на левом берегу реки Сусуя, которую в народе прозвали вонючим Дунаем, т.к. в эту реку сбрасывали промышленные отходы от фабрик: кожзавод, спиртзавод, резиновая фабрика.

В эту реку планомерно заходили на нерест лососевые рыбы: сима, горбуша, кета. Чтобы не ловили рыбу, которая определенно поднималась на нерест через реку Сусуя по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притокам, сбрасывали керосин с использованными моторными маслами. Когда поймешь рыбу, ее невозможно есть, т.к. пахнет керосином!

Это была борьба с браконьерством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асштабе?! Отшел от темы.

На правом берегу реки, проехав через единственный мост, который построен во времена Карафуты, широко расположился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Владимировка», где за мостом расположился мехзавод от рыбпрома, где производили и ремонтировали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рыбопереработки, и единственное двухэтажное здание: средняя школа N 15.

На этой стороне земляной дамбы не было, так как ландшафт естественный позволял течь реке по своему руслу. На левом берегу, где расположился наш дом, дальше планомерно строился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Здесь была земляная насыпь высотой примерно 6 метров.

В ночь на 4-5 августа река, набухшая отливной, расширилась и перевалила дамбу высотой в 6 метров!

(Оконча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по-разному оценивают встречу Юн Сок Ёля и Ли Чжэ Мёна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вает итоги встречи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я и лидера крупнейш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а, состоявшейся 29 апреля. Как заявил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Чон Хи Ён, данная встреча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являясь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в налаживании диалога между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илами.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отныне президент, правящая и оппозиционные партии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 контакты в различных форматах. В течение более чем двух часов Юн Сок Ёль и Ли Чжэ Мён обсудили ряд важных вопросов,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населения и медицинская реформа. Оппозиция выразила готов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проведении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напомнил Чон Хи Ён. Между тем, мелкие оппозиционные партии оценили встречу как бесполезную. Лидер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Ким Чжун У отметил, что не достигнуто никаких конкретны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Аналогичную оценку д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артии Новое будущее Чхве Сон.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в РК прибыли 43 беженца с Север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РК прибыли 43 беженца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том числе, 35 женщин и 8 мужчин. В результате общее число бывши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составляет 34.121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30 апре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В 2023 году на Юг прибыли 196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еребежчиков, что почти в три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Бегство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актически приостановилось в 2020-2021 годах из-за строгих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границе, введенных Пхеньяном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COVID-19.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в 2023 году фондом поддержк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Хана, гла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бегства с Севера являются недовольство правящим режимом и нехватк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30 апреля две крупные больницы Сеула приостановили работу

Два ведущих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 больница Сеу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больница Северанс - объявили 29 апреля о приостановке на один день амбулаторного приёма и плановых операций. Причиной стало то, что ведущие врачи объявили вторник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выходным днём из-за длительной забастовки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Между тем, отделения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работают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а пациенты, находящиеся в стационаре, получают необходимое лечение. Ведущие врачи Сеульской больницы Святой Марии и Медицинского центра Асан объяв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выходным днём пятницу. В этот день отменяются амбулаторный приём и плановые операци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ак Мин Су пообещал направить в крупные больницы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оенных врачей,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сбоев в оказани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уждающимся. Около 12 тысяч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не выходят на работу с 20 февраля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пл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величить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С 1 мая гражданам РК запрещены поездки на Гаити

С 1 мая введен запрет на поездк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 Гаити из-за проблем с безопасностью. Решение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принято 29 апр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Запрет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сю территорию остров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где после отстав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ктически отсутствует официальная власть, а столкновения между бандитскими группировками активизируются. Власти РК уже дважды эвакуировали своих граждан из этой стран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оседней Доминик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а Гаити находятся около 60 южно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м рекомендован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едостерегло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от поездок в штат Ракхайн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Мьянмы, где усиливается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между вооружёнными группировкам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войсками. С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ействует запрет на поездк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Мьянмы.

KBS проведет кампанию по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языковой культуры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KBS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проводит национальную кампанию по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языковой культуры и правильн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23 апреля президент KBS Пак Мин и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Ю Ин Чхон подписали рабочее соглашение. Согласно документу стороны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различные контентные и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языковой культуры в стране. Также будет вестись работа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условий правильного и грамот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одной речи и п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таких же контентов, выражаемых на языке жестов и на шрифте Брайля. RKI

Что стоит за рукопожатием власти и оппозиции

Сеул, 30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ь и лидер оппозиции Ли Чжэ Мен прове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свои 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переговоры, которые проведут, насколько обе стороны готовы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политике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ах.

Они встретились за чаем 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трех помощников каждого. Фиксированной повестки дня не было и их вступительные слова были доступны не сразу. Встреч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 предложению Юн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народной власти потерпела поражение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10 апреля,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оказалось под контролем возглавляемой Л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ореи (DPK).

Это были первые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ними с тех пор, как Юн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в мае 2022 года. Обе стороны заявили, что переговоры будут сосредоточены на поиске путей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жизни людей, хотя DPK также использовала встречу как возможность потребовать изменений в принципах

ве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Я пригласил его не с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хочу высказать то, что у меня на уме, ск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хочу послушать, что скаж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 Чжэ Мен», — сказал Юн журналистам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Мы не будем вносить ограничения в повестку дня, но поговорим о различных вопрос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оппозиционным блоком стало для Юна еще более важным, поскольку ему придется работать с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контролируемым оппозицией, в течение оставшихся трех лет своего единственного пятилетнего срок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акже имела большинство в парламенте в течение первых двух лет его пребывания у власти.

Первомайские шоу в столице

Сеул, 30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Seoul Festa, ежегодный весенний фестиваль, организуемый город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еула, начнется на этой неделе и продлится шесть дней, что позволит участникам насладиться искусством, кухней и атмосферой города, сообщили городские власти.

Seoul Festa 2024 пройдет на Seoul Plaza,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и в других местах в центре Сеула с 1 по 6 мая под лозунгом «Наслаждайся всем этим Сеулом» и будет включа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одные, кулинарные и други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С 1 по 3 мая в Seoul Plaza пройдет зона вечеринок, в первый день которой состоится вечеринка открытия, а в последующие два дня —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ерформансы и танцева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 названием «K-Star

Challenge». Тем временем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с 1 по 6 мая пройдет «Дорога стиля Сеула» — программа, состоящая из шести зон с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ми культуру, моду и красоту города. 4 мая «Сеульское роуд-шоу» превратит улицу Седжонг-даэро, проходящую вдоль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огромную сцену, гд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 другие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в парке Нойль в западном районе Сеула Сангам с 4 по 5 мая также состоится пикник с барбекю, а также несколько друг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всему городу. «Seoul Festa,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й весенний фестиваль, — это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и очарованием Сеула в одном месте», — сказал городской чиновник.

В сеульском метро стартовали трудов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23 апреля мэрия Сеула объявила о начале нового проекта выезд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трудовым вопросам. Он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на 27 крупных станциях столичного метро в конце рабочего дня,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занятых офис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е юристы по трудовым спорам Сеульского центра по защите прав трудящихся и городских центров поддержки трудящихся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бесплатно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для работающих горожан Сеула.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можно будет о всех проблемах, с которыми можно столкнуться на работе: от вопросов по правам работника, гарантированным трудовы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таких как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тпуска и составление договоров, до нарушений трудовых прав, например, невыплата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есправедливое увольнение и т.п. В основном консульта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на главных станциях 1, 2 и 7 веток метро, где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ы предприяти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а также стартапы. Проект начался в апреле и завершится в конце года.

Фильм «Криминальный город 4: Возмездие»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4 млн человек

28 апреля общее число просмотров криминального боевика «Криминальный город 4: Возмезд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Хо Мён Хэна с актёром Ма Дон Соком в главной роли на пятый день проката превысило четыре миллион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дистрибьюторском агентстве ABO Entertainment, фильм вышел в прокат 24 апреля, и уже на второй день его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Только в день премьеры фильм собрал у экранов 821 тыс. зрителей. Фильм не уступает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предыдущему эпизоду «Криминальный город-3», которы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10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Ожидается, что «Криминальный город 4» вслед за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ем» режиссера Чан Чжэ Хэна станет второй в этом году картиной, которую посмотрит более 10 млн. зрителей.

KBS World

Тайфун «Филлис»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Перед потопом приходил наш друг семьи и нас предупредил об опасности; велел приготовить вещи, запас пищи, документы.

Собрали пожитки. Уложили дочек спать. Одной было без трех месяцев три годика, а второй без трех месяцев годик. Дом был большой, добротный. Но решение горисполкома было сурово: подлежит под снос! Уже захвачена была половина огорода, и вдоль дамбы у реки строился 90 квартирный пятиэтажный шлакоблочный дом для нефтяников, которые осваивали морское глубокое бурение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От улочных тусклых фонарей было видно зеркало потока воды. Разбудил жену. У переулка стоял гараж, где стояло авто «Нива». Загрузил пожитки, начал эвакуировать детей. И тут вижу, как поток воды стремительно движется по переулку, сметая весь мусор.

Помню: дощечки, бревнышки, ящики, бочки на плаву. И все это в мгновение наполнило наш двор. Что удивительно, вода была в августе ледяная. Пришлось принять анестезию — несколько глотков коньяку. Жену пришлось сажать на плечи, ведь уровень воды во дворе был по мою грудь.

Тронулись в сторону моста, т.к. на улице Лермонтова проживала двоюродная сестра. У моста дежурила милиция, и людей выпускали со Владимировки, т.к. широкий поток подтопил много частных домов. Вырвался с цепи наш пес. С кусочком цепи он мчался за нами, когда нас остановили у моста. Я увидел своего пса. Отвязал цепь и посадил сзади к подножкам. На заднем сиденье вальтом лежали дети и мирно посапывали.

Приют почти на неделю нашли у друзей на улице Пуркаева. Собаку приютить я не смог. Пёс породы овчарка был умен, верно служил нам, привязанный на цепи, грозно охранял дом хозяев. Даже нянчил моих детей. На дневной сон их укладывали в детскую коляску и ставили возле будки пса. Он мирно дежурил, а когда ребенок просыпался, кряхтел и начинал плакать, а если люди не выходят, пёс гавкал, подавал сигнал: заберите ребенка!

Звали пса Дозор.

Испытав суровость и последствия тайфуна, я часто вспоминаю это роковое событие и друзей, которые приютили н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мою семью.

Государство компенсировало убытки денеж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углём и рисом. На 2-3 день после наводнения я с псом приехали домой, чтобы приютить его на привычное место. Но вода ещё стояла во дворе. Дом был потоплен по подоконник.

Спасая себя и свою семью, мы забыли о братьях меньших. В суматохе пес потерялся...

Виктор ЧЕ, 74 года

Строители приступили к новому этапу работ на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е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одрядчик уже построил 2600 метров, остается отрезок 800 метров. Новая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обеспечит прием всех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повысит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летов, сведет к минимуму сбои из-за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Объект планируют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уже в 2025 году. На площадке накануне побы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на оставшемся отрезке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800 метров.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атериалы уже подготовлены.

Мы получили поддержку Президента п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В 2024-2025 годах нам выделяют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заверш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мы успешно закончим эти работы. Это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элементов будущего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который формируется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Полная длина полосы - 3400 метров. Объект разработа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ейсмическими нормами и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эксплуатации в сложных метеоусловиях. Строителям еще предстоит выполнить работы по оборудованию навигационного и светосигна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истемы сбора и очистки дождевой и талой воды, созданию рулежных дорожек. Новая полоса будет на 15 метров шире действующей. Это позволит принимать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воздушные суд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одрядчик уже заверши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2600 метров полосы. Проверка ради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май.

За зиму мы запаслись инерт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 это скальный грунт, уже привезли цемент. В основании нет песка, только скальный грунт. Буд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щебни местные и с материка. И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а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центра полосы, - добавил Андрей Костоусов,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филиал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ООО «РСК».

Напомним, действующая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ведена в 1964 году. Она не была рассчитана на высокую сейсмичность, что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требованием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с учетом специф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егодня ресурс концевых участков полосы фактически исчерпан.

Развитие авиасообщения в области - приоритетная задач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ак, в 2023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ве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современный аэровокзал, ставший самым крупны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тот комплекс способен обслуживать примерно 1,6 тысячи пассажиров в час и до 5 миллионов в год.

Еще один важный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шаг - созда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на базе «Авроры». Она обеспечивает авиасообщением сотн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овышает качеств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ассажиров.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меж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 Москвой в 2023 году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о возросло. Теперь самолеты летают в столицу 19 раз в неделю.

Кроме т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пущен сервис «Лист ожидания». Он предоставля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билеты на самолет, поезд, паром или автобус, если они отсутствуют в свободной продаже. Анализ загрузки обращений в листе ожидания позволяет профильным ведомствам принимать правильные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решения, увеличивая количе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на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маршрутах.

Пожарной службе России исполняется 375 лет

30 апреля пожарной службе России исполняется 375 л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поздравил сотрудник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 знаменательной датой и вручил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й адрес от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1649 году согласно наказу государя и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Алексея Михайловича Романова «О градском благочинии» было создано первое в ис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формирование по борьбе с огнем. Почти четыре века отечественные пожарные являются примером верного служения Родине. Немало славных страниц в летопись службы вписали и наши земляк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жарная охрана зародилась в конце XIX века. А уже в 1907 году в посту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м появилось подразделение, в составе которого было семь человек. Оно стало первым полноценным формированием по борьбе с огнем на Сахалине.

«Благодаря своему мужеству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у огнеборц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спасли сотни человеческих жизней, сохранили имущество на миллиарды рублей.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делают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их техникой 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Сегодн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тивопожарная служб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одразде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ровня. Ежедневно на дежурство заступают 520 пожарных. В состоянии постоя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находится 151 единица техники, в том числе четыре поезда. Все эти силы и средства решают важнейшую задачу: надежно защищают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т огня, способствуют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Желаю вам, островные пожарные, новых успехов

в служ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благополучия и всего самого лучшего!», - сказано в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м адресе от губернатора.

Алексей Белик вручил сотрудник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В этот день хочется пожелать всем сотрудникам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добра, счастья и по традиции - сухих рукавов, - отмет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Моисеев.

Выражение «сухие рукава» означает спокойное дежурство,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не было возгораний,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ожарные рукава, по которым подается вода, остались сухими.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субботник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субботнику. Жители всех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ышли на улицу, чтобы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дворы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высадить деревья. В масштабной акции участвовали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нициатив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поддерж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спытываю большую гордость за наш регион, за наши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ышли на улицу, чтобы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свой двор,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территории предприятий. Это люди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которые любят свои города и села, хотят сделать их комфортнее и уютнее. Я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нашим землякам, чтобы вместе с ними посадить деревья в парке. Отлично провел время.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убедился, что мы - одна большая семья,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борку провели во двора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пешеходных зонах и территориях возле учреждений. Например, более 50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з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Юнармии» и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пришли в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им. Ю.А. Гагарина. Вмест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ребята высадили 40 деревьев.

Я считаю, что мы должны высаживать деревья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Это не отнимает много времени и сил. Но в результате наши города и села становятся красивее. К тому же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объединяют. Сегодня я нашел новых друзей, весело и с пользой провел время, - сказал участник субботника Андрей.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убботника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пределяли территории, где пройдут уборки. Жителям была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предоставлен инвентарь.

Каждый год всей семьей выходим на субботник. Во-первых, приятно вносить свой, хоть и небольшой, но вклад в создание порядка вокруг. Во-вторых, это очень сплачивает нашу семью. Мы с мужем с детства прививаем сыну любовь к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ответственное к ней отношение. Субботники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 собственном примере показать, насколько важна чистота вокруг себя и как приятно ходить по убранной улице,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рина Алексеева.

В Корсакове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навели порядок на обществ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 районе пересечения улиц Нагорной и Овражной с улицей Окружной, которая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вует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голосовании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сквер Северова,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улице Матросова.

В Смирных субботник прошел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Мир»,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Аллею Славы. В Тымовском навели порядок на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е, которая была обустроена в 2023 году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Масштабную уборку провел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тметим,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убботник завершил череду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наведению чистоты и порядка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ане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звал работ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а также всех неравнодушных островитя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традиционных акциях.

Напомн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 30 апреля продолжалось Всероссий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которые преобразятся в 2025 году. Проект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нициирован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оддержать про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островитяне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лет на платформе za.gorodsreda.ru.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можно через подтвержденную учетную запись на Госуслугах.

Нача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вого участка западного объез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первый участок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8,3 км между селами Троицкое и Дальнее. В дальнейшем магистраль соединит федеральные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побыв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так как позволит разгрузить действующий маршрут, проходящий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 улиц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это уменьшит количество пробок, улучшит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и позволит преобразить центральный район города. Новая магистраль позволит разгрузить потоки, прежде всего, грузовых машин из портов, проходящих через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Оконч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рвого этапа западного объезда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23,6 км намечено на 2026 год. Всего предстоит построить более 40 километров новой дороги. Участок магистрали от Троицкого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через горный массив и заканчиваться в Дальнем. Такое решение позволит вывести весь грузовой транспорт, которому не требуется заезд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сразу на федеральную трас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Фактически - это историческая трасса, которая в будущем может стать федеральной. И как только мы введем ее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город сразу задышит легче.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удет освобожден от грузов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обок,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ся. Сократится количество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йчас на объекте ведутся земляные работы. На участке подготавливают технику для мостовых сооружений. Западный обх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удет иметь две полосы движения.

У нас будет 4 мостовых сооружения и 2 путепровода. Для этого потребуется 6 машин, 2 уже пришли. Одна на площадке собирается, вторая в порту в Холмске. До конца этого месяц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езти еще 4 машины.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объект обеспечен в необходимом объеме, - отметил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м, в 2024 году более 15 километро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х дорог Сахалина приведут в соответствие с нормативами. Работы проведут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и затронут участки в Томаринском, Холмском и Анивском районах, а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егионе такж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федеральной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строено 59 км дороги на нескольких участках. К концу 2025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еще 112 километров.

4000 домов в сахалинских СНТ 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бесплатное подключение к газу

Под президентскую программу социальной газификации попадут жилые дома в садоводчески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СНТ должно быть расположено в граница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куда уже пришло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Выступая 29 февраля с Посла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заявил, что садоводческие товарищества теперь включаются в программу догазификации. Ранее этим правом мог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только жители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газов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бесплатно доводят до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где расположен дом. Проведение сетей до дома и внутридомовое газ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плачивают сами жител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ручил расширить программу и продолжить газовые сети до границ участков садоводческих товариществ. Доступ к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у топливу получат миллионы людей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граница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расположено более 200 СНТ. В качестве жилых там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свыше 4000 жилых дом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на сегодня информацию предостави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нивский и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ы.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работу и в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куда уже пришло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сделать инвентаризацию домовладений в СНТ, которые попадают под действие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рограммы.

В районах необходимо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боту,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о эффективно провести социальную газификацию в садоводчески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Люди не раз поднимали этот вопрос на встрече. Раньше жителям СНТ приходилось самим платить з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проведение газ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до своих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Теперь эти дорогостоящ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за счет Газпром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авом на бесплатное подключение к сетям, домовладение должно находиться в пределах газифицированно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быть п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 оформле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образом в Росреестре. Кроме того, в СНТ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общее собрание жильцов и оформ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протоколом.

Напомни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догазифицировали более 2100 домовладений в частном сектор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2 годом,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почти двукратного роста числа подключений к экологичному топлив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막 19 개국 70 명 참가

재외동포청, 각국 차세대 리더 모국 초청해 정체성 함양
및 네트워크 자리 마련
'한국 발전상 알리기' 등 역점 사업 소개하고
적극 지지 · 협력 당부

각국 동포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한인 차세대 리더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네트워크 교류·협력 강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주최하는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4.30 서울 중구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러시아, 벨라루스, 영국, 베트남 등 19 개국에서 정치, 경제, 법률, 의료 각 분야에서 활발하고 활동하고 있는 70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가 참가했다.

이기철 청장은 개회사에서 "다른 문화와 환경을 극복하면서 각국의 전문분야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분을 조국에 모실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참가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재외동포청 출범 후 과거와 달라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해외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 지원이라는 재외동포 정책의 두 가지 핵심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의 역점 사업이지만, 동포사회의 협력없이 불가능하므로 한인 차세대 리더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재외동포와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의 손톱 밑 가시를 빼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현장과 민생 중심의 재외동포청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재외동포재단 4대 이사장)은 "재외동포 선조들의 모국 기여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이를 국내 교과서에 수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축하했고, 김경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재외동포재단 6대 이사장)은 "재외동포청이 동포들을 위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차세대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세대 동포들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모국어인 한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인 차세대들은 5월 1일에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산현대모터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 한국의 발전상을 돌아본 뒤 서울 인근에서 전통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대회 3일차인 5월 2일에는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와 해외 교과서 수록 프로젝트에 동참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찾고, 주류사회 진출 경험을 공유하며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별 토론 등에 참여했다.

마지막 날인 5월 3일에는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 '글로벌 인재 사업 설명회'에 참가해 모국진출과 모국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통일부의 '통일정책 설명회'를 통해 우리 정부의 새로운 통일 담론과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대회 기간에 진행된 토론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폐회식과 환송오찬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우리말로 깨닫다]

지내다 보내다 살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미치겠는 일, 죽고 싶은 일, 괴로운 일, 견딜 수 없는 일, 어처구니가 없는 일, 화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는 지나갔으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우리는 인사말로 '잘 지내.'라는 말을 합니다. '잘 지냈어요?'가 과거에 대한 인사라면 '잘 지내.'는 기원을 담은 말입니다.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하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지나가고 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쉬어질 수도 있고, 몸에 한 것 들어갔던 긴장도 풀리겠지요, 우리는 그런 지나간 시간을 과거(過去)라고 합니다. 지날 과에 갈 거가 합쳐진 말입니다. 인사말에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담겨있는 셈입니다. 다 좋은 과거가 되기 바랍니다. 아픈 일도, 슬픈 일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한편 우리는 시간을 보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즐겁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라는 인사말은 들을 때마다 어색합니다. 휴일은 보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붙잡아 두고 싶은 심정인 사람도 많겠지요. 월요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사람도 봅니다. 어차피 시간은 가게 마련이니 이왕이면 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의인법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별하기 마련이듯이 시간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드려야지요. 이왕이면 기쁘게 보내면 좋겠네요. 기쁘려면 함께한 추억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말에서 지내다, 보내다 말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는 '설을 쇠다'의 쇠다가 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다른 날에는 사용하지 않고, 설에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쇠다'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주로 추석이나 다른 날에는 쓰지 않습니다. 동사가 어떤 목적어와만 함께 쓰인다면 그것은 두 단어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다'는 '신'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뺨다'도 '발'과의 관련성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쇠다의 경우는 설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아닐까 추론합니다. 설은 나이를 나타내는 살과 같은 어원이고, 해와 관련된 말로 보입니다. 일년이 한 해이고, 한 살, 한 설인 셈입니다. 따라서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원을 찾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지내다, 보내다, 쇠다 말고 '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인사말에서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듯합니다. 저는 이 살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사람이라는 말과 살다라는 말은 같은 어원입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살'이라고 합니다. 인생이지요. 축생(畜生)으로 살아가는 것을 '짐승'이라고 하니 사람다운 삶은 삶의 기본조건입니다.

살다라는 말을 조금 자세히 풀어서 쓰면 '살아가다'가 됩니다. '가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앞이라는 지향점을 봅니다.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긍정적(肯定的)이고 전향적(前向的)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살다에 피동의 표현을 더하면 '살아지다'가 되는 데, 수동적인 삶입니다. 남에게 이끌려서 사는 삶이니 늘 힘들게 지내고,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은 그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지나가게 하지 말고, 그저 보내버리지만 말고 뚜벅뚜벅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인사말에는 '사세요'가 많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건강하게 살고, 웃으며 살고,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재외언론의 공공외교 역할 모색...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막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최

20개국 동포언론인 60여명 참가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는 공공외교에 앞장"

공공외교 역할 모색하는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막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거주국과 동포사회에 알리기 위한 재외 언론의 역할을 모색하는 '제24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막했다.

'재외동포 공공외교와 재외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근·이하 세언협)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20개국에서 60여명의 동포 언론인이 참여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재외언론은 700만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글 신문과 방송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 유지에 앞장서면서 공공외교의 토대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며 "한류에 힘입어 거주국 주류사회 교과서에 한국을 알리거나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는데 언론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조국의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 곳곳을 해외에 알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양창영 전 국회의원,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장, 이구홍 전 동포재단 이사장, 조봉제 재외동포포럼 회장, 정광일 재외동포유권자연맹 공동대표, 이미진 세언협 이사장, 김홍수 세언협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석기 의원은 "현 정부는 동포사회 숙원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동포사회와 모국이 소통하고 거주국에서 당당하게 살도록 돕고 있다"며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동포사회 목소리를 세세히 살피고 소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익 함평군수는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개막식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기철 청장은 "대한민국은 과거 식민지 수탈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유럽연합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700만 재외동포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해주는 동포 언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재외언론은 한국 문화와 가치를 거주국에 전하기 위한 의제 설정에 큰 힘을 발휘해왔고, 이제 힘을 모아서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개막식에서는 명창 소리꾼 정상희·함수연의 판소리 호남가, 흥



4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재외언론의 공공외교 역할을 모색하는 '제24회 세계한인언론인 대회'가 개막했다. [촬영 강희현 기자]

부가를 비롯해 국악인 조은별의 김백봉부채춤 공연이 열렸다.

5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제15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 심포지엄'을 겸한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민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김재기 전남대 교수와 한동섭 한양대 교수가 각각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어제와 오늘'과 '문화전파와 해외 한인 언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튿날인 30일 오전에는 김성곤 이사장이 '분단 시대 공공외교와 재외언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밖에 최재용 법무법인 성현 대표가 '언론과 법률'을 주제로 발표한 후 재외동포 공공외교 사례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전북 전주와 전남 함평·담양·장성 및 광주광역시 등을 방문해 다양한 지역 관광·산업·특산물을 소개하기 위한 취재를 하며, 동포 언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협회 총회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전주시,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전남 관광재단, 세계한인무역협회,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한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세계 40여 개국 180여 개의 한글 매체가 회원사로 가입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2002년 제1회 재외동포 기자 대회로 시작된 대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세계한인언론대회와 국제심포지엄으로 확대돼 열리고 있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이는 러시아 연방 교육부가 학교학생들을 위한 직업 지도 프로젝트 '미래로 가는 티켓'의 일환으로 수여했다. 지원자들은 러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3,000개 이상의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심사전문가들이 70개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제1회 국가상 '러시아, 나의 지평선'은 조기 진로 지도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 후보 중에는 학생들에게 농업을 가르친 오랜 경험이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제32호 학교가 있다."라고 시행절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따라서 2022-2023학년도에 5-7학년 학생들은 과학자들의 지도하에 학교의 실험장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와일드브의 채소밭", "감자" 및 "보리"라는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시, 지역 및 전 러시아 대회 및 컨퍼런스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을 선언했고, 그리고 "초보 농부"사할린주 대회의 작물 생산 분야에서 '온실에서 샐러드 식물 종류와 파,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하는 것'으로 수상했다.

Сахалин вышел в финал перв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емии «Россия – мои горизонты»

В Москве стали известны результаты перв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емии «Россия – мои горизонты», которая присужда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по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ому проекту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Билет в будущее». Соискатели подали свыше 3 тысяч заявок из все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эксперты отобрали 70 лучших.

Перв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емия «Россия – мои горизонты»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крепление значимости ранней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в стране.

«В числе финалистов – многолетний опыт школы № 3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школьников к за-

нятию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 отмет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города.

Так, в 2022-2023 учебном году ученики 5-7 классо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ученых вырастили на школьном учебно-опытном участк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культуры, работая над проектом по темам «Вавиловский огород», «Картофель», «Ячмень». Ребята успешно заявили о себе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конкурсах и конференциях,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в област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Начинающий фермер» в сфере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за культивирование зелени и лука, а также томатов и огурцов в теплице.

통계국, 사할린주의 노동력에 대해 정리

사할린 통계국은 사할린주의 노동력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사할린주의 15세 이상 노동력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2월 현재 노동력 수는 전체 인구의 58.7%인 270.3만 명이며, 이 중 262.1만 명(97.0%)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8.2만 명(3.0%)은 취업은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 방법론에 따라 실업자로 분류되었다.

2024년 1월~2월 사할린 주 기관들의 평균 근로자 수는 총 182,400명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근로자 수는 교육분야 21,800 명, 공공 행정 분야 20,400명, 의료 분야 20,200명, 운송 및 보관 분야(물류)18,700명, 건설분야 16,100명, 무역분야 13,300명, 광업분야 10,500명이다.

작년 12월 말, 주내 기관들에는 11,483명의 근로자가 필요했다. 공공 행정 및 군사 보안 기관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했으며, 의무 사회 보장 분야 3,185명(수요의 27.7%), 건설 분야 1,296명(11.3%), 운송 및 보관 분야 1,039명(9.0%)였다.

올해 1 ~ 2 월 기관들의 근로자 월 평균 임금(누적 급여)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 % 증가한 126,700 루블리에 달했다. 실질 임금(소비자 물가지수 고려)은 2.5% 증가했다.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사할린주 평균 임금보다 2.8배, 어업 및 양식업에서는 1.5배, 금융 분야에서는

22.4%, 운송 및 보관업 분야에서는 3.3% 더 높다.

О численности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тат представил данные о численности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исленность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выбороч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в возрасте 15 лет и старше, в феврале 2024 года составила 270,3 тыс. человек или 58,7 %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их числе 262,1 тыс. человек (97,0%) заняты в экономике и 8,2 тыс. человек (3,0 %) не имели занятия, но активно его искали 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тодологи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классифицировались как безработные.

Среднесписочная численность рабо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январе-феврале 2024 года составила 182,4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ибольшая численность работающих в образовании – 21,8 тыс. человек;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 20,4 тыс. человек;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 20,2 тыс. человек; в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и хранении – 18,7 тыс. человек;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 16,1 тыс. человек; в торговле – 13,3 тыс. человек; в добыче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 10,5 тыс. человек.

На конец декабр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области требовалось 11483 работника. Более всего нуждались в работниках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обеспечения во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язатель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3185 человек (27,7% вакансий),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1296 человек (11,3%), в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и хранении 1039 человек (9,0%).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начислен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работников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в январе-февр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оставила 126,7 тысяч рублей, что на 10,5%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е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с учетом индекс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выросла на 2,5%.

Выше среднеобластного уровн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у работников, занятых в добыче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 в 2,8 раза; в рыболовстве и рыбоводстве – в 1,5 раза; в финанс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на 22,4%; в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и хранении – на 3,3%.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4 года!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